

지방자치·국제

“모든 주택 담보대출 DTI 30% 이내로”

<총부채상환비율>

민주 김동철의원 법안 발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사진)은 7일 현재 금융감독 당국의 재량으로 결정되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 열지구에서만 40%가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적용비율은 대통령령으로 30%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역시 모

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투기지역·투기과 열지구에서 대출기간이 10년 이하이고 대출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경우에는 현행 대로 4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근거와 적용 범위를 마련키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한족-위구르족 충돌

中 우루무치 사태 3일째

사망자 156명과 부상자 1천800명을 낸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의 대규모 유혈 시위 사태는 시위 발생 사흘째인 7일 절대 다수민족인 한(漢)족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의 분리독립 시위에 맞서 보복 시위를 벌이고 위구르족 시위도 재개되면서 민족대결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한족들은 이날 시내 곳곳에서 쇠파이프, 각목, 벽돌 등을 무기로 활용한 것은 모두 들고나와 시위를 벌였다.

한족 3천여명은 이날 오후 3시(현지시간)께 중산로에 모여 위구르족의 시위에 대한 맞시위에 들어갔다.

또 다른 한족 시위대 300여명은 이

날 오후 1시께 창장로, 앙쓰강로 등에서 시가행진에 나서니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인민광장을 향해 4불록 가량 시가행진을 하면서 위구르족 상점과 식료품점을 부수기도 했다.

위구르인들의 시위도 재개됐다.

위구르인 5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께 위구르인 밀집지역인 우루무치 시 남부 경마장 부근의 성리로에 모여 지난 5일 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된 위구르인 1천400여명의 석방과 위구르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갔다.

또 우루무치 남부기차역에서는 위구르인 10여명이 벽돌과 칼을 들고 길가던 한족들을 마구 공격했고 한족이 운영하는 상점들을 습격한 후 도주했다.

/연합뉴스



중국 서부 신장위구루 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서 최악의 유혈 시위가 발생, 1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7일 여성들이 시위 진압 경찰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현장과 시작

공연 예술제와 ‘끼리끼리 문화’

최근 지역 공연 단체들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문진위)는 심사위원 선정에 애를 먹었다.

단체에게 1억원까지 지원하는 유례없는 사업인데다, 탈락과 선정이 갈리는 공모 심사에 늘상 말이 나오지만 광주는 그 정도가 심해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다.

문진위는 고심 끝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추천을 의뢰, 전원 외지 사람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고 문진위 위원 한명만 읍서부 형식으로 참여했다.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이번 단체 선정과 관련 큰 잡음은 없었지만 ‘광주의 대표 문화상품’을 만들고, ‘대표 문화 단체’를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데 지역 인사가 단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파벌’로 갈라진 문화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해 안타까웠다.

당시 심사위원들이 공연 분야 전문가임은 분명하지만 각 단체가 제출한 ‘문서’에서는 볼 수 없는 지역문화에 여건이나 단체 역량·평가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그들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끼리끼리 문화’는 광주문화계도 예외가 아니다. 대형 프로젝트나 공모가 진행될 때마다 언급되는 게 파벌과 인맥이다. 요즘엔 예술계 내부 인맥 뿐 아니라 행정기관과 정치권 연결고리까지 불거져 나오는 형편이다.

광주국제공연예술제(이하 공연예술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난 해 좌초 위기까지 겪었던 공연예술제를 둘러싼 잡음의 중심도 ‘사람’이었다. 최근 공연예술제가 새 이사장을 꾸렸지만 상황은 ‘도돌이표’다. 행사 파행과 관련, 사퇴했던 인사들이 다시 이사로 참여한 점을 보면 시와 걸끄러운 특정인만 제거한 거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사회를 열기 전에 ‘예술감독 내정설’이 떠도는 것도 사실 여부를 떠나 문화계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사회가 꾸려지자마자 “A씨가 있는 한 특집이 안된다” “특집인 박탁은 정치적 배려”라는 풍문이 퍼져나갔다. 한쪽에서는 ‘내정설’을 부인하며 광주의 고질적인 음해성 발언이라고 맞받아쳤다.

현재 상처투성이 공연예술제는 일부 봉합 상태다. 이번에 상처가 덜난다면 치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행사 주최측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젊은 예술인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또 ‘코드’가 맞지 않더라도 선입견과 편견 없이 모든 예술가들에게 참여 기회를 열어주게 필요하다.

공연예술제 안착을 위해선 예술인들의 ‘열린 마인드’가 절실히 한다. 서로 흡집내고 상대 의견에 귀를 닫고 있는 한 공연예술제, 문화관의 미래도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 지원을 이유로 행여나 시가 지나치게 간접한다면 그 역시 문화계를 맹 있게 하는 일입니다.

/mekim@kwangju.co.kr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본원출신 실제 합격자 중 80%가 어름방학부터 공무원강좌 수강신청!!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합격을 이끄는 한빛은 프로다

2008.9.27시행 환빛고시 출신 이규호님
총합전판위 (광주/전남/북)
경쟁률 1064.7:1
수석합격

종합반 하루9시간 강의

행정직/ 세무직/ 검찰직/ 법원직/ 소방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경찰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기술직/ 경찰직

기능직특채

=향후 3년간 5,000명 채용=

- 고시학원의 대표브랜드 -

한빛
고시학원

광주 북구점 (062)234-0234

• IPALG 종합특수방수

방수와 단열이 하나로

(특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896503호)

IPALG 트라이슈머 복합단열시트 방수공법

- 방수 뿐 아니라 뛰어난 단열기능까지 들어있습니다.
- 보행성이 탁월하고 옥상바닥소음을 없애줍니다.
- 이중방수효과로 견고한 복합방수층을 형성합니다.
- 시공 바닥면의 진행성 크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열에 강해서 태양열에 의한 변형이 적습니다.
- 계절과 상관없는 천천후 시공이며 공사기간이 짧습니다.
- 신축건물에도 적합한 최고의 방수공법입니다.
- 선진국형 친환경 방수공법입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062)511-0444

홈/폐/이/지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목포지점 (061)284-0485 순천지점 (061)726-0482
여수지점 (061)683-0485 광양지점 (061)795-0485

»»» 최고의 강사진! 최고의 교육시설! 최고의 합격시스템! «««

일반직 공무원 특채 [기능직→일반직]

'09년 10월 24일(토) 필기시험 대비 예정

주말 특별 단독반 7월4일(토) 개강

이론반 2개월(7/4~8/30) 진도 완벽 완성

사회[김영채 교수] 매주 토요일 13:00~21:00 (8시간, 8주)

행정학[임혁 교수] 매주 일요일 10:00~18:00 (8시간, 8주)

할 수 있다는 믿음! 동부고시학원에서는 현실이 됩니다. www.dongbugosi.co.kr

1위 **동부고시학원**
동부경찰서 바로뒤
233-0509